

한동훈 “‘제3자 특검’ 당내 이견 좁히는 절차 거치는 중”

민주당, 26일 발의 테드라인 제시 여당 안 없으면 자체안 추진 경고
韓,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여부 결정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약속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내용이 담긴 특검법 발의 테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여당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 주지 않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자체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후대

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다.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지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 대표 한마디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던져놨다.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막말·사퇴요구 피켓·자질 논란 등 與野 공방

김 후보자, 과거 발언 대해 사과
‘실질임금 감소’ 질문에 “처음 들어”
野,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 의문 질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협업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입이 자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박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으로 잠시 정화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

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때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본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대환·윤도현 기자 yunbgb0611@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세번째)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오른쪽 첫번째)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러스(왼쪽 두번째) 뉴질랜드 총리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尹, 뉴질랜드 총리와 양국 협력방안 논의

러스 총리, 내달 4일~5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러스 뉴질랜드 총리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지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러스 총리는 9월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러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러스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러스 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계기로 진행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담에서 만난 바 있다.

1970년생인 러스 총리는 에어뉴질랜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고, 2020년 의회에 입성해 2021년 말 국민당 대표를 맡았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의원’ 임명

삼성전자 ‘갤럭시 성공 신화’ 주역 당내서 ‘반도체 특별법’ 입법 이끌어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22대 국회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고동진 의원(조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외에 법률자문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조선·부산 해운대갑),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로, 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이끌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개발을 주도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층’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재영입을 위한 초점을 중수층에 맞춘다는 세팅은 잘된 것 같다”고 평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